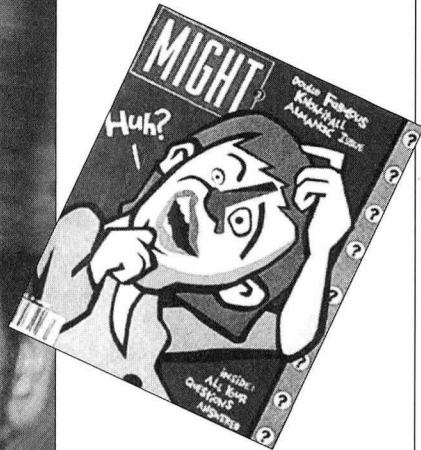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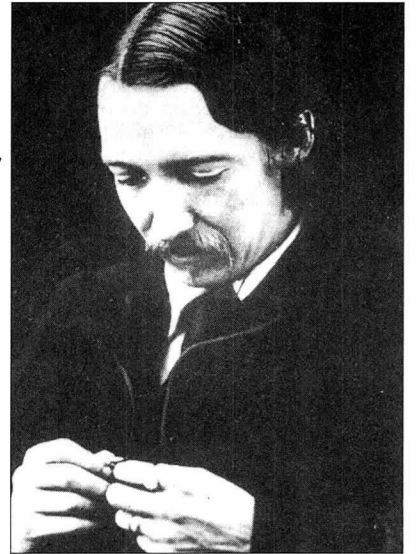


美 잡지계에 파격적인 X세대 돌풍

격월간지 《마이트》...수준높은 블랙 유머, 기발한 발상으로 급부상



《마이트》의 창간 멤버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미국 잡지계에 X세대 돌풍이 불고 있다. 20대 남녀 친구 세명이 지난 겨울 창간한 격월간 잡지 《마이트(Might)》가 수준높은 블랙유머와 기발한 발상으로 지식인 독자들의 격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겨우 5호째를 내놓은 데다가 부수도 3만부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전설적인 유머잡지 《스파이》의 대를 잇는 정통 후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까지 발간된 《마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잡지가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지난 7월에 나온 5호의 첫 장을 들춰본 독자들은 어리둥절했다. 목차에 기사 대신 광고 제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실린 고침기사도 기존 잡지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 예를 들어 "11페이지 기사에서 저자는 예수를 구질구질한 히피의 원형으로 지적했다. 사실 예수는 신의 아들이다. 독자께 착오가 있었던 것을 사과드린다"는 식이다. 편집 스타일이 매호 바뀌는 것도 《마이트》의 특징이자 매력이다. 따라서 일반 독자보다는 잡지 또는 미디어 전반의 특성을 꿰뚫고 있는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마이트》지는 25살 동갑내기 고교동창 세명에 의해 창간됐다. 창간 멤버는 데이비드 에거스, 데이비드 무디, 마니 르쿠아. 시카고 교외에 있는 레이크 포리스트 고등학교 재학시절, 세 사람은 백인 중산층 특유의 답

답한 생활문화 스타일을 꼬집어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해 같은 제호의 잡지를 만들었다. 졸업 후 각각 다른 대학교로 진학했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재회한 이들은 십대시절의 야심을 다시 한번 실현하기 위해 뭉쳤다.

첫번째 장애는 제작비. 적당한 물주를 구하기 힘들었던 이들은 예금과 크레디트 카드 대출금을 긁어 모았다. 총 액수는 1만달러. 첫 호로 1만부를 찍었다. 현재 발행부수는 3만부이지만 그만큼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종이값이 뛰는 바람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직원은 아직도 세사람뿐이며 급여는 전혀 받지 않고 있다. 게다가 모두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에만 모여 잡지를 만든다. 마니 르쿠아는 웨이트레싱과 잡지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고 에거스와 무디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이다.

아무런 대가없이 일하면서도 이들은 전혀 불평이 없다. 오히려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것과는 다르지 않느냐"며 당당하게 말한다. 흔히 X세대라면 이기적이고 힘든 일은 싫어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달려든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데이비드 에거스는 《뉴스위크》 최근호 인터뷰에서 "기존 언론의 냉소주의와 멍청함

에 정말 화가 났다. 우리같이 젊고 기발한 사람들에 의해 얼터너티브한 잡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보물섬》의 작가 스티븐슨 전기 출간

《보물섬》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94)의 전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랜덤 하우스刊)이 출간됐다. 프랭크 맥린 이 쓴 이 책은 기존 전기와 달리 스티븐슨의 유년기 콤플렉스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는 데다가 부인 페니를 악처로 묘사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스티븐슨은 스코틀랜드 수도 에딘버러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등대 건설업자였던 아버지 토머스의 영향으로 스티븐슨은 어린 시절부터 바닷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훗날 작가로 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닦았다. 그는 대학시절 학교에는 거의 가지 않고 문학, 미술 등 여러 예술 분야들을 섭렵하면서 딜레탕트의 기질을 드러냈다. 특히 낮에는 신사복, 밤에는 남루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헤매면서 사람들이 외모에 따라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가를 직접 경험해볼 만큼 호기심도 많았다.

대다수 독자들이 스티븐슨하면 우선 《보

물섬》을 떠올리고 모험심많은 괄괄한 성격의 소유자로 상상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저자 맥린의 분석은 좀 다르다. 평생 주변사람들에 휘둘렸던 심약한 기질의 소유자였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보모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으며, 성장기 때는 권위적인 아버지, 결혼 후에는 아내 페니의 끊임없는 간섭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스티븐슨이 페니를 처음 만났을 당시 스티븐슨은 30세, 페니는 40세였다. 게다가 페니는 이혼하지 않고 별거상태인 남편과 18세짜리 딸, 11세 난 아들을 두고 있었다. 스티븐슨은 페니는 물론 나머지 세 사람도 자신의 돈으로 부양하다시피했다. 저자 맥린은 소유욕이 강했던 페니가 스티븐슨의 문학적 교제 범위를 고의로 축소시켰으며, 대표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씨》의 초고내용이 너무 공격적이란 이유로 불태워버릴 정도로 지나친 간섭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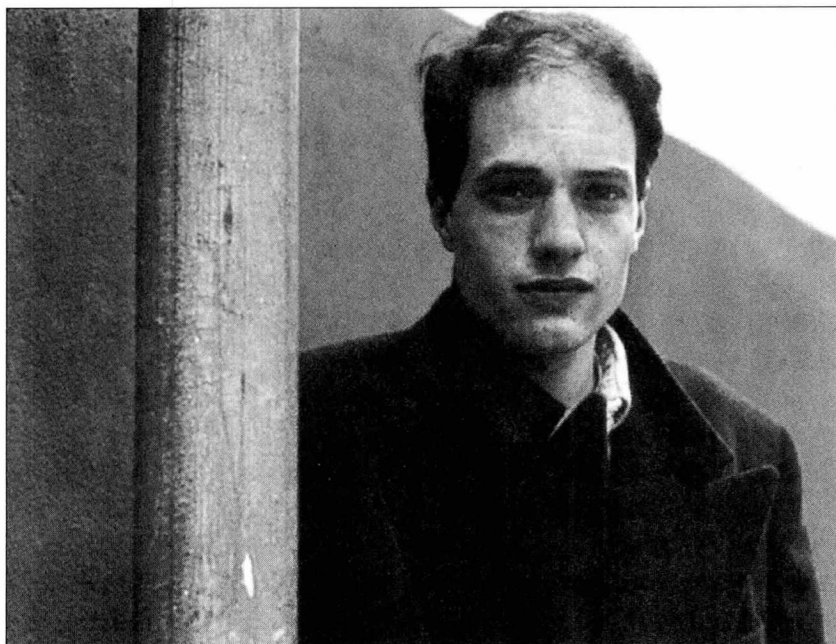
스티븐슨은 폐병 때문에 따뜻한 날씨를 찾아 스위스,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을 전전했으며 결국 남태평양 사모아 섬에서 44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다.

영 신예작가 소설 젊은 독자에 인기

프랑스계 영국 작가 알렉 드 보통(25)의 두번째 소설 《로맨틱 무브먼트(Romantic Movement)》(피카도르 USA刊)가 "주머니에서 동전을 발견했을 때처럼 잔잔한 기쁨

을 느끼게 하는 작품”으로 호평받으면서 젊은 독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드 보통은 2년전 데뷔작 《사랑에 관하여》가 13개국어로 번역 출간, 일약 주목받는 작가로 떠오른 신예. 당시 “데카르트가 쓴 《코스모폴리탄》지 기사같은 소설”이란 반응을 얻었다. 프랑스의 대철학자 데카르트의 작품을 연상시킬 만큼 지적이고 진지하면서도 미국의 대중잡지처럼 세련됐다는 것이다.



프랑스계 영국작가 알렉 드 보통(25)

《로맨틱 무브먼트》도 전작의 분위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제는 이번에도 ‘사랑’이다. 여자주인공 엘리스는 광고회사 직원이고 남자주인공 에릭은 판매사원이다. 두 사람은 댄스 파티에서 만나 연인 사이가 된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늘 빠격거린다. 엘리스는 로맨틱스인데 비해 에릭은 자칭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 장난꾸러기 요정 픽이 사랑의 방해꾼 노릇을 한다.

이 작품의 즐거움은 무척 간단하다. 남녀가 서로 싸우면서 사랑을 키워나간다는 뻔한 내용이다보니 새로울 것도 별로 없다. 하지만 이같은 진부한 소재 덕에 드 보통의 탁월한 문장력과 발랄한 감수성이 돋보이고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말인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새로운 각도에서 매력적으로 재창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언론과 평론가들은 드 보통에게 ‘90년대식 스타달’이란 별명을 붙여줄 만큼 큰 기대를 나타내

고 있다.〈오에리〉

국가의 몰락과 ‘경제시장’

국가가 이제 종말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설득력 있게 회자되고 있다. 국가는 한때 현기증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한 권력이었다.

한때는 복지국가의 성격을 지녔으며, 최근에는 복지국가의 모습이 좀더 부각되기도 했다. 변화의 시기에는 경종을 울리는 예측들이 선행하곤 하는데, 지금의 경우 여러가지 정보들이 암시하는 바는 2차대전 후에 독일과 북구에서 발전되어온 복지국가가 이번 세기말에 사라지게 되리라는 것.

클라우스 코흐(Claus Koch)가 최근에 펴낸 《시장의 욕망-세계 경제전쟁에서 무력한 국가(Die Gier des Marktes-Die Ohnmacht des Staates im Kampf der Weltwirtschaft)》에서 이 문제에 하나의 답을 던지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우선 시장이 점점 국가의 기능을 대체해가고 있다는 것인데, 이제 시장은 하나의 활동범위를 넘어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국가가 보장했던 사회의 근본적인 틀에 깊숙이 관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70년대 말부터 서유럽과 북미에서 확립된 시장의 자유화는 국가 경제능력의 몰락을 초래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국가, 노동조합, 사회민주주의 등 그 모든 전망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시장의 자유화에 따라 사회적인 통합력이 해체되면 사회의 몰락을 사회의 위기로 직결시키는 힘도 사라지게 된다.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무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그 증거이다. 위기관 새로운 것의 창조를 위한 침식과정이 압축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저자가 보기에 국가의 능력은 사라졌다. 위기는 이미 국가가 방기한 경제의 유희공간과 결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몰락은 바로 국가 자신의 책임이다. 사회복지국가의 해체는 재정관리 틀 통해 자기몰락으로 귀결된 것이다. 사회적 결속력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을 재정적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도덕적인 공동화(空洞化)에 처했으며, 결과는 ‘성장의 정치’로 표출되었다. 때때로 논구되는 앙드레 고르쥬의 국가외적 경제 이성이라는 유토피야도, 구직이나 급여문제에 대한 보장제도를 지향하는 시민기금이라는 이상도 코흐에게는 회의적이다. “그의 사회경제적인 비판론은 정치적인 단념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코흐의 책은 자신의 평가와는 다르게, 이 시대에 결정적인 처방으로서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다.” 《차이트》지에 서평을 쓴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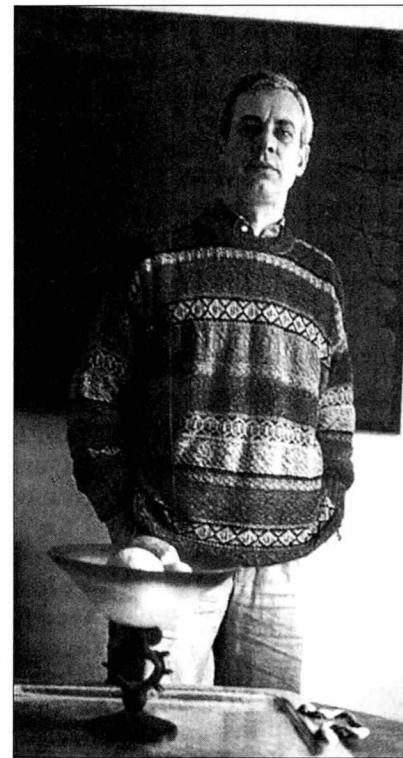
어린 시절의 혼란과 절망

어린 시절의 상처가 순진한 영혼을 왜곡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소설가들이 그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 첫사랑의 낙원이 언제나 푸르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책 없이 극적인 강렬함을 꿈꾸는 사람에게 첫사랑은 애매하게 남는다. 친성적인 걱정 근심, 행복에의 부적응, 단절의 느낌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를 낳게 된다.

샤를르 뒤페세의 소설 《배반(Trahison)》의 주인공 프랑수아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이런 불만거리들을 단숨에 털어놓는다. 이 소설은 한 가족이 어느날 아침 국도를 따라 조부모가 사는 지방으로 8시간의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부모는 뒷문 뒤에

숨어 빠리에 사는 자손들의 차가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자손들 곁에서 미소짓는다. 과거를 회상하며 잘못된 자신들에게 있다는 듯이.

그의 가족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엄청난 구두쇠인 아버지, 항상 불행하고 신경질적인 어머니, 그리고 나이에 맞지 않는 종교교육에 질식할 것 같은 어린 아들 프랑수아가 휴가를 맞아 그들의 권태와



샤를르 뒤페세.

고독을 안고 여행을 떠난다.

흔히 어린 시절의 공포는 일생에 걸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지만, 여행중 일어나는 사건들은 프랑수아를 혼란에 빠뜨린다. 프랑수아가 회회할 만한 짓을 감행하게 한 것은 소심한 그가 대담해져서가 아니다. 갑자기 등장한 미셀이라는 청년이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프랑수아에게 변화와 저항의 정신을 일깨운다. 그는 프랑수아의 어머니가 정해놓은 일과표를 무시해버리고 온갖 허세를 다 부리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극도의 짜증을 부린다.

독자들은 프랑수아가 어떻게 이 악마같은 인간에게 매혹당해 절망적으로 그를 추종하게 되는지 따라가봄으로써 이 작품의 소설적 재미를 맛볼 수 있다. 어느 여름밤에 불행에 가득찬 한 인간에게 곤봉으로 한대 맞은 것처럼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을까?〈김택〉